

〈주부생활〉 명화 덕에 미술세계로 김달진 관장

‘걸어다니는 미술사전으로 유명한 김달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 그를 미술계로 이끈 것은 〈주부생활〉이었다. 그 특별한 인연

에디터 이인철 사진 김태환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 ‘영화와 스타아스트로리’, ‘세계명작에의 초대’ 같은 제목의 소책자와 익숙한 해와명화들, 검은색 화백의 〈매화여인〉 등 국내외 유명 화가의 작품을 스캔한 것들도 눈에 띄었다. 45년간 미술 관련 자료를 모은 김달진 관장이 빼곡한 스크랩북 가운데서 꺼내 보여 준 〈주부생활〉 자료들이다. “이 소책자는 60년대 후반 〈주부생활〉이 발행한 별책부록이에요, 그 당시 〈주부생활〉 별책부록은 대단했죠. 웬만한 단행본을 능가했어요. 중학생 때 단땀갑 같은 것을 모으면서 수집하는 취미를 붙였는데, 〈주부생활〉의 ‘이달의 명화’, ‘주부 화랑’에 실린 그림을 보고는 하나씩 뜯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 미술계 자료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는 주요잡지에 연재된 그림들의 목록을 만든 다음 청계천 현책방에서 과월호 잡지를 사 그림 페이지만 뜯어서 매체별로 스크랩을 했다. “대전에 있던 중학생이 그림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화랑을 다니면서 그림을 볼 수도 없고 흑백시대였는데 〈주부생활〉을 통해 처음으로 그림을 컬러(본지는 잠시 최초로 컬러 원색화보를 선보였다)로 보게 된 것이지요. 그림을 흑백으로 보면 형태는 파악이 되지만 컬러가 안 들어가서 감동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컬러로 보니 색감이 아름다워 갖고 싶었죠.” 잡지 속 그림이 그의 인생행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림에 눈 뜬 이후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닌 그는 좀 더 많은 그림과 자료들을 접할 수 있었고, 특히 197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현대미술 60년전’을 관람한 후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주말이면 서울 인사동을 돌며 도록과 팸플릿을 수집했다. 그가 보여주는 당시 전시 팸플릿에는 구입 날짜와 날짜, 금액까지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이런 미술 자료수집의 인연과 열정 덕분에 그는 미술 전공자도 아닌 고졸 출신으로 월간 〈전시계〉 기자가 됐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과 가나아트에서도 일한 그는 2001년 김달진미술연구소를 열면서 평생 모은 자료를 세상에 선보였다. 김 관장은 우리 사회가 자료의 중요성과 보존 가치에 대해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한다. “자료는 역사의 증거물이죠. 예를 들어 1952년에 땀가에 미술 전시회 팸플릿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당시는 분령 한국전쟁 중인데 어떻게 전시회가 열릴 수 있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신문을 찾아보니 정말 열린 겁니다. 자료의 힘이란 이런 것이죠.” 김 관장이 수집에 빠져 있을 무렵, 어른들은 그에게 “신문 쪼가리만 오려서 나중에 어떻게 밥 먹고 살라고 하느냐”며 나무랐다고. 그는 “결국은 밥 먹고 살고 있었어요”라며 크게 웃었다.

“〈주부생활〉의 ‘이달의 명화’, ‘주부 화랑’에 실린 그림을 보고는 하나씩 뜯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